



FUNCTIONAL & AESTHETIC

프랑스 아티스트 자비에 베이앙의 파리 스튜디오는 그의 실험적인 작업을 반영하는 거울 같은 공간이다. 동시에 10여 명의 직원들이 일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기능적인 공간이다.

WORDS 박인영 PHOTOS JEAN-FRANCOIS JAUSSAUD/LUX PRODUCTIONS

자비에 베이앙은 최근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프랑스 아티스트 중 한 명이다.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과 퐁피두 센터에서 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베르사유 궁에서 개인전을 갖기도 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또 다른 프랑스 작가 장미엘 오토나엘과 함께 첫 번째 전시를 열었다. 그의 작품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그의 친구나 동료, 동물들을 모델로 삼은 거대한 조각상이지만, 사실 그는 회화, 조각, 설치, 사진, 영화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공간은 그에게 예술적인 영감을 담아내는 하나의 캔버스인 동시에 편안함과 실용성을 갖춘 도구이기도 하다. 천장이 높은 공간의 장점을 잘 살려 두 개의 층을 더 만들고, 마감을 하지 않은 합판 벽과 원래 상태의 콘크리트 천장 그리고 블루 컬러의 천장 빔을 배치한 스튜디오는 감각적이면서 편리하다.

당신의 스튜디오에 대해 설명하면? 1960년대에 세워진 인더스트리얼 건물로 당시에 이 지역의 장인들을 이주시키기 위해 세워졌어요. 원래부터 보조공간이 나오는 평범한 스튜디오나 이미 레너베이션된 공업단지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여느 작업실과 다른 공간을 찾아다니다 이곳을 발견했죠. 무엇보다 천장이 높아서 2층을 만들고 그 위에 또 다른 메자닌을 만들 수 있었어요. 큰 창으로는 햇빛도 잘 듭니다.

이곳의 데카레이션은 어떻게 꾸몄나? 나와 함께 이 공간을 디자인한 건축가 엘리자베스 르메르시에와 필립 보나는 내 작업을 잘 이해하는 오랜 친구들이에요. 2006년 지금의 이 스튜디오

에 처음 왔을 때 그들의 도움 없이 이 공간을 레너베이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나는 이 공간이 중성적이길 바랐어요. 프로젝트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서 편안해야 하죠. 그래서 접하는 슬라이딩 도어를 달았고 점심이나 저녁을 먹을 수 있는 부엌을 디자인했어요. 무엇보다 정돈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배관의 위치를 바꾸었어요. 그리고 기능적으로나 미학적으로 뛰어난 오브제를, 예를 들면 샤를로트 페리앙이 디자인한 문, 임스 체어, 카스틸리오나와 부를렉 형제의 조명, 콘스탄틴 그릭의 하이 스톤 등을 놓았어요.

이곳을 위해 특별히 디자인한 것이 있다면? 블루와 화이트 컬러의 벨트로 지탱되는 알루미늄 계단, 2층 난간에 설치한 쿠션 안전장치, 서로 맞물리는 구조로 된 시스템 선반, 어부의 그림을 연상시키는 천장 조명 등을 르메르시에, 보나와 함께 만들었어요.

어떤 소재(재료)를 좋아하는지? 스스로를 '재료를 실험하는 작가'라고 부를 정도로 다양한 재료를 사용합니다. 새로운 재료와 기술들을 전통적인 기법과 접목하는 걸 좋아하죠.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 익숙한 것과 낯선 것.

다음 전시 계획은? 우선 프랑스 메츠에 새로 오픈한 퐁피두 센터에서 11월에 'The Large Carriage' 전시를 엽니다. 이 전시는 2009년 베르사유 궁에서 이미 선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갈리리로 에마누엘 페로틴 마이애미(Galerie Emmanuel Perrotin Miami)에서 개인전이 있고 내년에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도 개인전을 열 계획입니다.

www.veilhan.net



4

- 1 스튜디오의 계단 앞에 선 자비에 베이랑.
- 2 이 스튜디오에서 유일하게 오픈되어 있지 않은 방으로 음악을 듣거나 비주얼 자료를 보거나 회의를 하거나 휴식을 취할 때 사용하는 다용도 공간이다.
- 3 베이랑은 친구나 동료들 모 델로 삼아 조각상을 만든다.
- 4 최근 천장을 따라 길게 이어지는 창에서 빛이 풍부하게 들어온다. 창 아래 벽에도 시스템 선반을 설치했다.
- 5 입구에는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면 또 다른 메자닌으로 오르는 계단이 있다.
- 6 파란색과 흰색 벨트로 지정되는 알루미늄 계단. 내추럴한 합판으로 마감한 벽, 사울로트 페리앙이 디자인한 문.
- 7 프로덕션 스튜디오를 거쳐서 나오는 사무 공간. 합판으로 마감한 내추럴한 벽과 가공을 하지 않은 시멘트 천장 그리고 블루 컬러의 천장 빔이 잘 어울려준다. 벽에 걸린 작품은 베이랑의 'Ghost Landscapes'.



7



5

"나는 이공간이 중성적이길 바랐어요. 프로젝트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서 편안해야 하죠."



6

2



3



“스튜디오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입구에 들어서면 프로덕션 스튜디오가 있고 거길 통과해야 사무 공간이 나오죠.”





- 1 베이잉의 프로토타입과 'Blind Sculpture'.
- 2 2층 위에 자신의 사무 공간. 가구의 자유로운 배치와 눈길을 끈다.
- 3 2층의 사무 공간. 앞에 보이는 루션 패드는 난간에 설치한 안전장치로 베이잉이 프예르시에, 보나와 함께 디자인했다. 왼쪽으로 시스템 선반이 보인다.
- 4 입구에 들어서면 보이는 프로덕션 스튜디오. 실제 작품을 제작하는 공간이다. 이 공간을 자·야 사무 공간으로 갈 수 있다. 레일을 따라 설치한 접이식 슬라이딩 도어로 필요에 따라 이 공간을 열어놓거나 닫아놓는다.
- 5 프로덕션 스튜디오에서 제작 중인 작품.
- 6 친구나 동료들 모델로 한 조각상들.
- 7 2층의 동근 천장 아래 설치한 시스템 선반. 저비에 베이잉이 프예르시에, 보나와 함께 디자인했다. 조명은 부물레 형제 디자인.
- 8 2층 한쪽에는 부엌이 설치되어 있어 이 테이블은 점심시간이면 식탁으로 사용된다.

